

“복의 사람”

스가랴 | Zechariah 8:13

말씀 FOCUS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든,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자체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세상이 타협하기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 UNDERSTAND

➤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기 위해

1. 과거 죄의 ()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3)
2. ()으로 거듭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6, 사 5:20, 롬 3:24)

말씀 APPLY & SHARE

1. 설교에서 미국 교회들이 다양성,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타협하고 있나요?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요?
2. 최근에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죄나, 오래 전부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나요? 설교에서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이라는 고백처럼, 내가 허비한 시간이나 놓친 기회들을 떠올리며 함께 나눠봅시다.
3. 지금 내가 속한 곳(가정, 직장, 교회, 동네)에서 복을 흘려 보내기보다 불평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